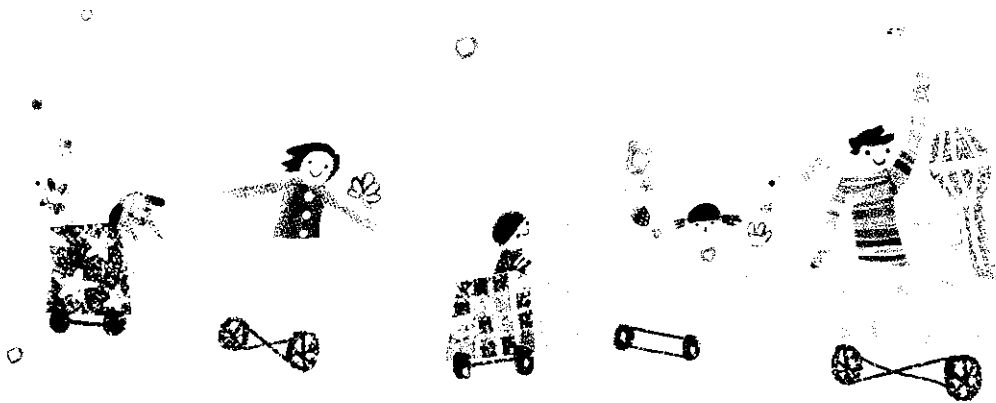


도민을 위한
작지만



Contents

01 시내버스 요금으로 자가용 택시 타는 '시골마을 행복택시'	04
02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우리들의 '행복마을'	10
03 농산물 판매, 홍보도 우리 손으로 농업인이 함께 하는 모바일 장터 '잇다팜'	16
04 'U-119 안심콜' 과 '유관기관 Hot-line' 으로 기능해진 신속한 이송체계	22
05 눈높이 맞춤형 '필벗' 을 통해 청소년들의 마음의 문을 열다	28
06 이웃이 이웃을 돕는 365! 두드림 통합복지포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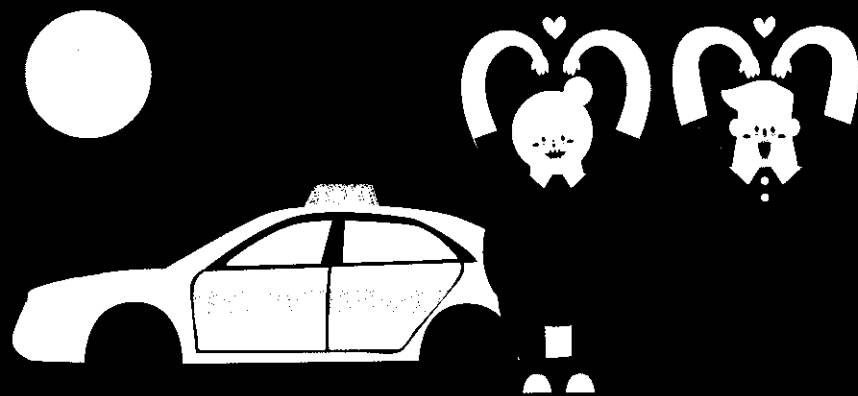
07 종이문서 이젠 필요없어 '모바일 시정공유 시스템' 으로 고민 끝!	42
08 '공공요금 단일화' 로 황당한 불편 말끔히 해소	48
09 '지역맞춤형 교육지원사업' 으로 구직 구인난 한 번에 싸~악	54
10 '경로당 전담 주치의 서비스' 로 읍내 병·의원을 방문 하는 번거로움이 줄었어요	62
11 부서간 칸막이를 없애고 지역간 경계도 허무는 협업행정의 활성화	68
부록 알면 유용한 생활속의 정부3.0	75



읍내로 병원,

장보러 가려면 너무 힘들어!

시골에 사는 우리 잘못이지 뭐~



시내버스 요금으로 자가용 택시 타는 '시골마을 행복택시' 부르시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충청북도

교통 오지 마을의 변신

하늘 아래 첫 동네로 불리는 속리산 기슭의 충북 보은군 회인면 갈리터 마을, 12가구 26명이 사는 이 작은 마을은 도내에서도 손꼽히는 교통 오지에 속한다.

도로 여건이 나쁘고 주민 수가 얼마 되지 않는 작은 마을이라 농어촌 버스는 고사하고 택시조차 운영을 꺼린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은 회인 면사무소나 보은 재래시장에 가기 위해 2km 정도 떨어진 이웃 마을

애곡리 정류장까지 한참을 걸어가 버스를 타야 했다. 가끔 시급한 경우 큰맘을 먹고 택시를 타기도 하지만 택시비 1만 2000원은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

면사무소에 볼일 보러 가면 반나절, 보은읍 재래시장에 갔다 오려면 한나절이 꼬박 걸렸다.

그러던 중 갈리터 마을에 '행복택시'가 다니게 되었다. 요즘 주민들은 행복택시를 타고 한 시간이면 면사무소에 가서 볼일을 보고, 두 세 시간이면 보은 재래시장에 갔다 올 수 있다. 주민들은 "이젠 외출하는 게 즐겁다."고 입을 모은다.

침체된 지역운송업계에 불어온 새바람

요즘 우리네의 시골 모습은 대부분 비슷하다.

덩치 큰 시내버스는 장날에나 손님 몇 명 태울까, 평소에는 거의 빈차로 운행된다. 택시 이용객도 적어 택시기사들은 터미널 앞에 줄지어 차를 주차한 채 삼삼오오 모여 잡담하기 일쑤다.

그러나 '시골마을 행복택시'로 인해 택시 승객이 늘고 고정수입이

확보되었다. 활력이 잃었던 지역 운송업계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어온 것이다.

운송업계-오지 주민을 위한 '상생방안'

'시골마을 행복택시'는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시골마을에 버스 요금 1300원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침체된 지역 운송업계에는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고 대중교통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지마을 주민들에게는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운송업계와 지역주민을 위한 상생의 대안으로 출발한 것이 '시골마을 행복택시'이다.

시골마을 행복택시, 어떤 마을에서 운행되나?

충청북도에서는 2014년 6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수회에 걸쳐 도내 11개 시군의 마을 중 시내버스가 적게 운행되거나 아예 운행되지

않는 마을을 대상으로 행복택시 도입에 대한 희망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내버스가 하루 1회라도 운행되는 마을에서는 기존 시내버스의 영업권을 침해한다는 버스업계의 반발이 있었다. 도와 시·군, 버스, 택시업계는 수차례의 대화를 통해 버스 미운행 마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시골마을 행복택시'를 운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버스정류장까지 700m 이상 떨어져 있고, 5가구·10명 이상이 거주하는 자연마을을 운행기준으로 하여 시·군에서 제출한 운행대상 184개 마을에 대해 2015년 3월 충청북도가 직접 현지확인을 거쳐 확정하였다. 2015년 7월 1일 부터 100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운행을 한 후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운행하기로 하였다.

지역주민들 한결같이 '굿!'

그동안 대중교통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소규모 마을 주민들은 이제 버스 요금과 동일한 1300원만 내면 언제든지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생활이 크게 편리해진 시골마을 주민들은 입을 모아 행복택시를 칭찬하고 있다.

보은군 회인면 갈터리 최모 노인회장은 “그동안 병원이나 장터에 가려면 피약벌 아래서 한참을 걸어 다녀야 했지만 이제는 너무 편해졌다.”며 “몸이 불편한 노인들이 가장 반긴다.”고 말했다.

영동군 부상리 전모 할머니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 다리 아파 죽겠는데 택시타고 갔다 오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늙은이들이 이렇게 호강할 줄 몰랐어.”라며 연신 미소를 지으셨다.

주민들에게 많이 되어드리는 ‘시골마을 행복택시’의 2015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의 시범운영 실적을 보면, 11개 시·군 100개 마을에서 총 운행횟수 7018회, 총 탑승인원 9749명으로 하루 평균 106명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무기력한 우리마을!

뭐 즐거운 일 없을까요?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에 홀로 사는 윤보(80) 할머니는 요즘 행복하다.

“마을 청소, 풍물·농악 놀이 등 행복마을 가꾸기로 주민들끼리 자주 만나다 보니 외로움도 덜하고 기분이 좋아요.”라며 윤 할머니는 미소를 짓는다.

옥천군 청산면에 사는 송모(68세)씨도 “우리 마을을 찾는 사람들이

새롭게 단장한 꽃길 등을 보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라며 자량이 대단하다.

충청북도는 도내 저발전 마을을 대상으로 ‘행복마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행복마을’이란 ‘배려와 공존의 경제·문화·복지 기반을 마련하고, 마을 주민들이 참여와 소통으로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며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마을’을 말한다.

다시 말해 행복마을 사업은 마을 간 균형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 스스로 자기 지역의 자원을 조사하고 사업을 선제·추진하는 것이다.

3단계로 나누어 진행

행복마을 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된 사업으로 총 3단계로 나뉘 추진 된다.

1단계(녹색마을)에서는 총 15개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별로 300만원을 지원한다. 각 마을에서는 마을 청소, 하천 정비, 꽃길 조성, 재활용품 분리보관소 운영, 가로수 식재, 마을 안내판 설치, 우물 복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2단계(디딤마을)에서는 1단계 사업을 종합평가하여 7개 마을을 선정, 마을별로 3000만원을 지원하여 마을 가꾸기, 풍물·농악 등 전통문화 계승, 마을 공동체 회복, 마을 박물관 건립 등을 진행한다.

3단계(희망마을)에는 2단계 사업을 평가하여 2~3개 마을에 각각 5000만원을 지원하여 소규모작업장·마을회관·창고 리모델링, 민속품 전시장, 공예교실 등을 추진한다.

행복마을을 위한 행복한 마을 만들기

행복마을 사업에 대한 동기부여와 참여를 유발하기 위해 충청북도는 마을리더 교육, 마을 주민 교육, 선진마을 견학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고, 출향인사·공무원 등의 멘토를 통해 부족한 역량을 강화하였다. 또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출향인사나 귀농인이 살았던 도시 마을 주민들과 자매결연을 맺어 상호방문 행사를 갖는 등 마을별 다양한 활동도 추진하였다.

2015년도에 행복마을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은 하나같이 “마을이

깨끗해져서 너무 좋다.”, “마을을 직접 청소해 보니 함부로 쓰레기를 버릴 수 없더라.”, “주민들끼리 자주 만나게 되니 매일 잔치 분위기라 좋다.”, “우리 마을이 정말 활기차고 살기 좋아졌다.”고 한껏 반기는 분위기다.

충청북도는 행복마을 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높고, 마을환경 정비 및 주민화합과 같은 공동체가 크게 활성화되는 등 성과가 우수하다고 판단, 2016년도부터는 35개 마을로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행복마을 사업의 성공 요인

우선, 마을 주민들이 함께 계획하고 노력한 작은 결과물들이 생기면서 주민들은 자신감과 자부심을 얻게 되었고 이에 따라 행복마을 사업에 점점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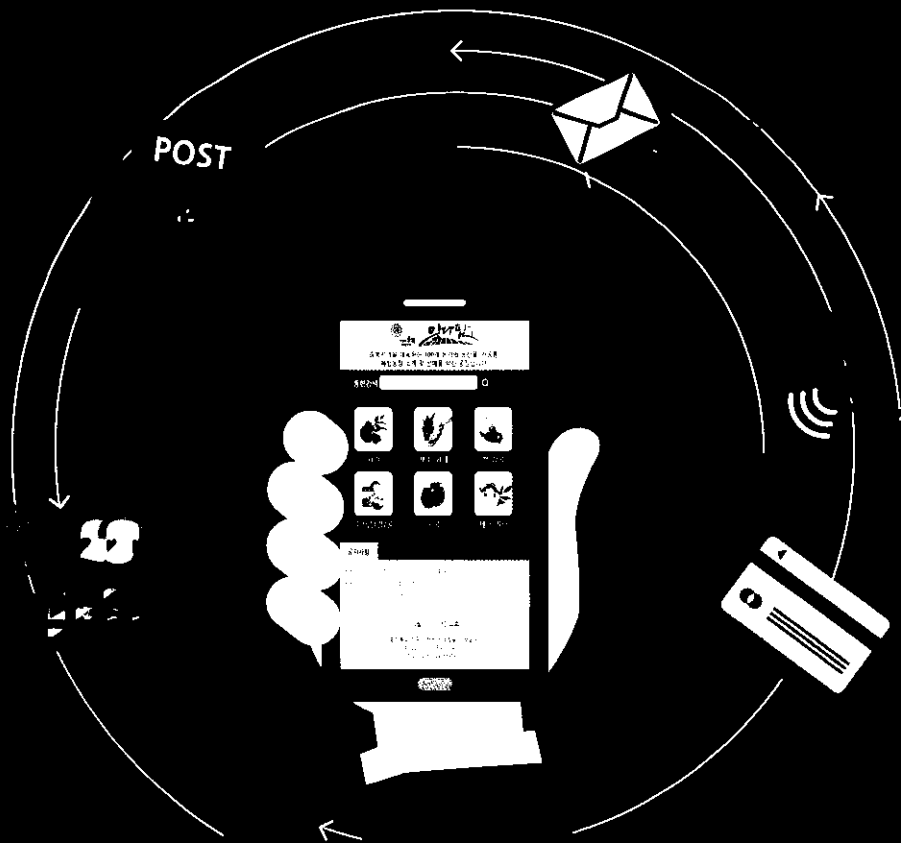
또한 마을별 경쟁을 통한 사업비 지원 확대로 주민들의 경쟁심을 유도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것들이 모여 행복마을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다고 본다.

한편, 행복마을에서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귀농인들과 자신감을 회복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어버이날 경모축제, 체험마을 조성 등을 통해 더욱 끈끈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환경,

판로 개척이 너무 어려워요!



농산물 판매, 홍보도 이제는 우리 손으로 농업인이 함께 하는 모바일 장터 ‘잇다팜’

충청북도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판매장 마련 요구

충북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베테랑 농사꾼 K씨. 그는 요즘 농업의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빈번하게 나타나는 자연재해와 돌발병충 등 생산적인 요소뿐 아니라 판로와 유통망 개척에 대한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한다.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좋은 농산물을 키워 팔 수 있는 판매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충청북도는 충북정보화 농업인들의 요구로 농산물의 효과적인 홍보와 도내 농·특산물 판매 증진을 위한 모바일 장터 구축방안에 대하여 고민하게 되었다.

농업인이 함께하는 모바일 장터 '잇다팜'

도는 스마트폰의 대중화, 모바일에 의한 정보검색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현실과 유통단계가 많아지면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식품의 가격은 높아지지만 정작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줄어들게 된다는 점에 착안해 모바일 장터 '잇다팜'을 개발하였다.

'잇다팜'은 농가와 농가, 농가와 소비자를 이어주어 농가협력과 도·농 상생의 길을 열어간다는 의미를 가진 모바일 장터로, 소비자와 생산자를 직접 연결하여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살 수 있고, 생산자는 농산물의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다. 이로써 충북농산물의 효과적인 홍보와 도내 농특산물 판매 증진이 보다 가능해졌다.

모바일 장터는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등과 같은 각종 SNS와의 연계가 쉬워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농가는 자신의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농가의 재베스토리를 보면서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그러한 소통의 장이 2015년 1월 만들어진 것이다.

SNS를 통한 공유와 확산의 미학

충청북도농업기술원에서는 '잇다팜'을 끊임없이 소비자들에게 노출시키기 위하여 모바일 장터 참여자들 중 일부를 대상으로 '블로그 두레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는 블로그 두레단은 '잇다팜' 활성화에 있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앞으로도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쇼핑 성장에 대응해 농가 소득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고객관리 및 마케팅 역량강화를 위한 SNS 홍보방안 교육도 꾸준히 진행할 것이다.

농촌의 진화, 스마트 농업이 뜬다

모바일 장터를 활용해본 한 이용자는 “모바일을 활용해 접근성과 편의성이 뛰어나고, 생산자를 알 수 있어서 믿고 주문할 수 있었다.”며 “충북의 땅에서 자란 안전한 먹거리인 로컬 푸드를 한눈에 보고 즐길 수 있어 앞으로 모바일 장터를 자주 이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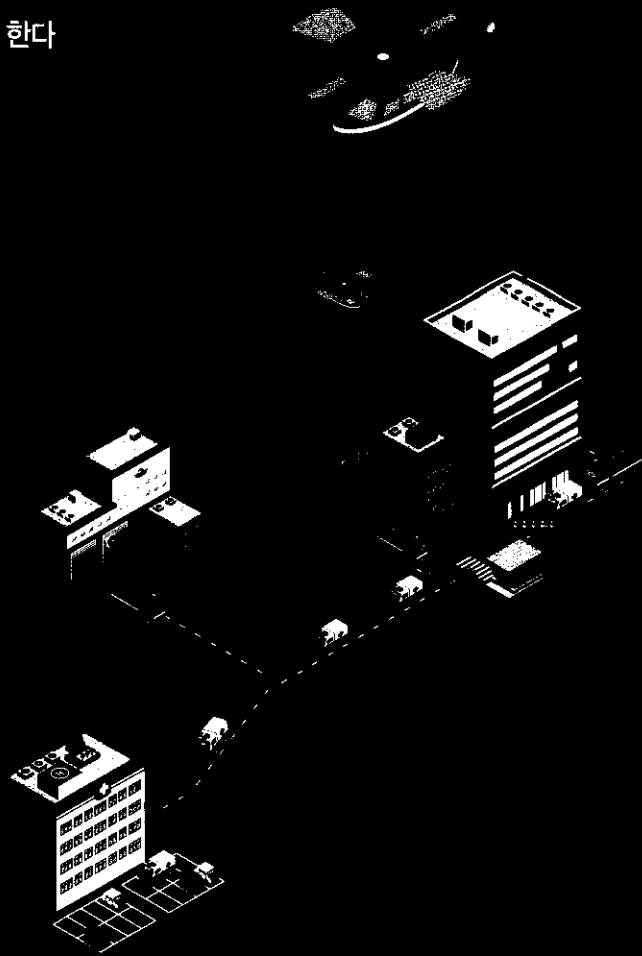
농가 모바일 장터 서비스 개시로 도내 재배농가와 소비자 간 농특산물 직거래가 활성화돼 농가 소득증대 및 소비자 편익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갑자기 닥친 생사의 갈림길

골든타임 내에

병원에 도착해야 한다



‘U-119 안심콜’과 ‘유관기관 Hot-line’으로 가능해진 신속한 이송체계

충청북도

생사를 가르는 시간 ‘골든타임’

2년 전 건강상의 이유로 귀농을 선택한 59세 A씨.

A씨는 고혈압과 협심증에 시달려온 만성 심혈관 질환자다. A씨는 제천으로 들어와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즐기며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는 중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갑작스럽게 찾아온 추위에 A씨는 가슴 통증과 답답함을 느꼈다.

오랜 기간 동안 종종 느꼈던 증상이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기려던 차에, A씨는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며 주저앉고 말았다. A씨의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이 시작된 것이다. A씨는 즉시 휴대전화로 U-119 안심콜에 신고했고, 40분만에 제천시와 협약된 적정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다. 심·뇌혈관 질환자의 구조에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 내 이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공조체제 통한 골든타임 내 이송체계 구축

초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급성 흉통·뇌졸중 질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고령인구가 많은 지방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심·뇌혈관 질환자에 대한 인명소생률을 향상시키려면 무엇보다도 골든타임 내에 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이 중요하다.

충청북도소방본부는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구하기 위해 지역응급 의료기관-119구급대-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연계한 '핫 라인(Hot-line)'을 구축했다. 적정한 환자 이송을 위해서는 유관기관들의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역할 수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도민 맞춤형 응급의료지원

충청북도에서 운영 중인 'U-119 안심콜'은 위급상황에 처한 수혜자의 정보를 출동 구급대원에게 전달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구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인터넷으로 병력, 주소, 전화번호 등 수혜자의 개인정보를 소방방재청 유비쿼터스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면 이후 등록된 번호로 119에 신고했을 때 출동하는 구급대원이 환자 맞춤형 응급처치를 신속하게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민·관이 함께하는 응급의료체계 구축

충청북도는 2014년 2월 도내 응급의료기관과의 MOU 체결을 시작으로 2014년 3월~8월간 상황실 및 119 구급대의 역량 강화에 주력하였다.

구급차와 소방헬기가 연계된 1시간 이내 공조시스템을 마련한 것은 더욱 특징적이다.

이후 2014년 9월에는 대한응급의료지도의사에 대한 심혈관질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하고 12월에는 구급지도협의회를 개최하였다. 2015년 4월 현재 급성뇌졸중 환자의 병원 이송과 관련하여 알림 및 전문지도의사 자문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권역뇌혈관센터 핫라인은 동부, 서부, 보은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도민 맞춤형 119서비스 제공

충청북도에서는 도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 맞춤형 구급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 결과 2014년 12월 기준으로 심뇌혈관 질환 및 고위험군 환자를 기준으로 U-안심콜에 등록된 인원이 1417명에 달하는 성과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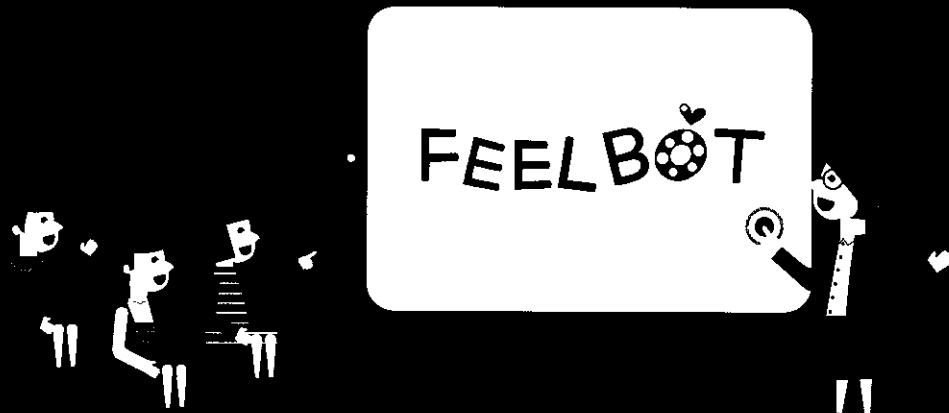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1시간 이내 이송 비율이 96.3%(3506명), 협약병원 이송비율은 71.5%(2604명)에 달했다.

이제 구급현장에서는 환자 분류의 적정성이 높아져 맞춤형 전문 응급처치가 가능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적정병원으로의 골든타임 내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의료기관에서는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병력 등 정보를 파악하여 적절한 의료진, 장비, 수술

등을 신속히 준비할 수 있다.

고령화 시대에 필수적인 심뇌혈관 질환자의 소생률 향상,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한 충청북도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학교 폭력과 소통 단절,
심리적으로 불안한 청소년들이
마음을 열지 않아요...



눈높이 맞춤형 필봇을 통해 청소년들의 마음의 문을 열다

충청북도

필봇의 시작은 교사로부터

‘필봇’의 시작은 교직에 계신 선생님의 제안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아이들의 속마음을 전혀 모른 채 학생을 지도했다는 부끄러운 사실에

‘필봇(FEELBOT)’이라는 감정소통 프로그램을 생각해낸 것이다.

그렇게 필봇은 아이들의 삶에 좀 더 깊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고 싶다는

선생님의 소망에서 시작되었다.

오로지 아이들의 입장에서 고민

필봇(Feel+robot)은 인간과 로봇이 서로 공유해야 한다는 뜻의 이름이다.

하드웨어와 IT산업의 눈부신 발전은 우리 사회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그 안에는 좋은 점도 있지만 어두운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빠른 것, 편한 것, 내 것에 익숙하고 소통은 단절되어 인간성은 상실 되어 간다. 생활은 너무나 편리하지만 사람들은 점점 외롭다고 느끼고 혼자가 되어간다.

감성이라는 인간 중심의 선계를 바탕으로 많은 연구와 함께 사물 인터넷(IOT) 웨어러블 기기들이 생겨나는 요즘, 필봇 프로젝트는 더욱 공감할 수 있는 미래아이템이 되었다

필벗은 아이들을 믿어주는 프로그램

처음에는 아이들의 마음을 닫는다는 생각이 어른들의 시각에서 무조건 좋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기존 기성세대들이 떠올리는 1회성 심리테스트는 거액의 예산을 들여 분제 학생을 대상으로 1분짜리 설문지를 실시하는 것이었고, 그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강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필벗은 형식적인 심리테스트가 아니다. 아파하고 있는 아이들이 마음을 털어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아이들을 믿어주기 위한 프로그램인 것이다.

아이들, 마음을 열다

지난 2015년 1월부터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시행되는 디지털선도형 콘텐츠코리아 랩 4호로 선정된 충북지식산업진흥원과 1인 창조기업 디두이보션(주)은 프로젝트를 구성하였다. 그리하여 1년간의 연구와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핍뵂'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아이들은 마음 속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으며, 자신의 감정을 소중히 생각하는 자존감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평소 쑥스러워 선생님께 이야기하지 못했던 고민도 서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선생님과 부모님도 아이들의 마음과 친구관계를 이해할 수 있었다. 변화의 시작이 이루어진 것이다.

버전 업그레이드, 다국어 버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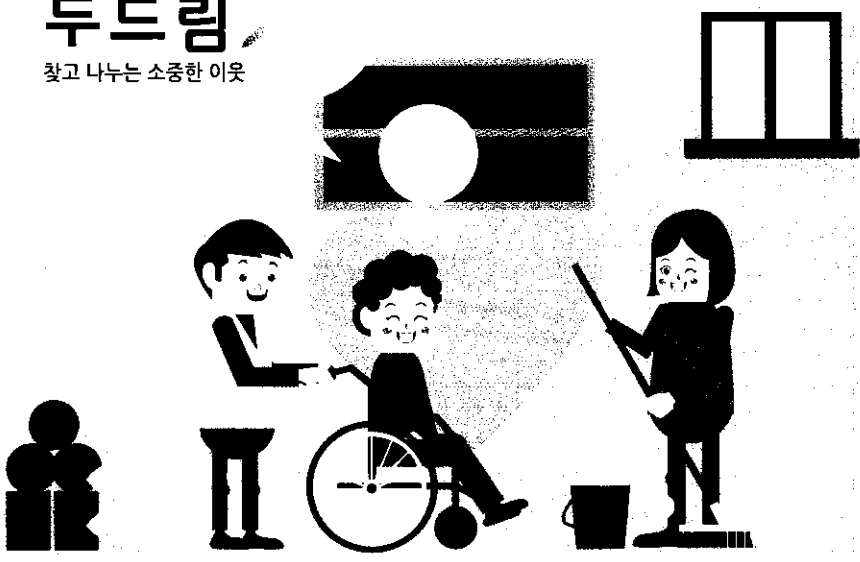
필수는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인 이용을 위해 지속적인 버전 업그레이드가 있을 계획이다. 세계적인 사용을 목표로 다국어 버전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 안전망과 관련하여 감성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곳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도 있다. 병원, 독거노인, 교도소, 군대 등 국민생활 분야 곳곳을 신산업 시장으로 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것도 목표다.

작은 시골학교 선생님의 생각이 지자체, 경찰서, 교육청, 충북지식산업진흥원, 교육부, 미래부라는 다양한 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아이들을 위한 창조물로 태어난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

.....
.....
.....
.....

365!
두드림
찾고 나누는 소중한 이웃



청주시

조손가정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할머니는 폐지를 주워 생활비를 마련한다.

다리가 불편한 할머니는 아파서 제대로 일할 수 없어 하루 종일 종중걸음 해봐야 손에 쥐는 건 3천원뿐이다. 손자 하나를 떨궈 놓고 소식 끊긴 아들이지만 세상 살기가 오죽 힘들면 그랬을까 싶다.

마음은 아리지만 정부 도움조차 받을 수 없는 현실에 할머니의

시름은 깊어만 간다.

“전에는 일이라도 했는데 지금은 아파서 아무 것도 못하겠으니
어떡하면 좋아요?”

할머니의 안타까운 푸념이다.

영철이는 할머니가 아파서 걱정되는 게 아니라 걱정하는 것이다.

오늘도 학교에서 돌아온 손자는 아파서 누워있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한숨과 걱정이 깊어진다. 아직은 젊어도 좋을 나이지만 영철이는
설움을 꺾꺾 눌러 담은 법부터 배워야 했다.

보이지 않는 희망에 지쳐만 가는 초등학교생 영철이는 할머니가 그저
건강하시기만을 바랄 뿐이다.

그런데 한 줄기 빛이 생겼다. 어려운 생계에 시름만 깊어가던 영철이와
할머니에게 ‘365! 두드림 통합복지포털’이 다가온 것이다. 할머니와
어린 손자는 청주 시민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다.

힘겨운 삶을 살아가지만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적극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는 이들이 참 많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웃의 따뜻한 손길이 닿기까지 지금의 복지시스템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힘겨운 삶의 무게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어도, 또 그런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도 그 방법을 알지 못한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 이웃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진정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지 못하고 나의 도움이 어떻게 전달되는지도 쉽게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복지서비스가 전달되는 과정을 관리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내는 체계적인 시스템이다.

행정안전부 「사회복지서비스법」 제10조 제1항

청주시는 체계적인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15년 6월 '청주시 365! 두드림 통합복지포털'을 개발해 운영 중이다.

365! 두드림은 청주시의 모든 시민이 참여해 복지사각지대를 신속히 해소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청주시 맞춤형 복지브랜드이다. 이는 365일 우리 이웃들의 근심과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청주시는 지역 내 모든 세대가 접근 가능한 인적안전망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를 세웠다. 우선 읍면동 이동장에게 복지임무를 부여하고 43개 읍면동에 민관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2607명 전원을 발굴인력으로 확보하였다. 또 우체국 집배원, 가스 안전점검원, 전력공사 전기점검원 총 413명, 청주 행복네트워크 내 51개 민간협력기관과 함께 인적안전망을 구성하여 '365! 두드림 지원단'을 가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분산된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합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며 서비스 이력관리 등을 통해 서비스 중복과 소외 계층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것이 바로

‘청주시 365! 두드림 통합복지포털’이다.

즉 365! 두드림 통합복지포털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돕고자 하는 사람을 신속하게 연결하는 시민참여형 통합복지시스템인 것이다.

365! 두드림 통합복지포털은 청주시와 복지재단, 4개 구청, 43개 읍면동이 각각의 체계에 따라 하나로 연결되어 운영되는 ‘복지 나눔 정거장’이라 할 수 있다. 365! 두드림 통합복지포털은 시민 누구나 ‘도움 요청자’와 ‘도움 제공자’로 홈페이지에 쉽게 등록할 수 있고, 복지포털 관리자는 등록된 도움 제공 민간자원을 어려운 이웃인 도움 요청자에게 불족이나 현금, 재능 나눔 등으로 연결한다. 이를 통해 누구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내가 보낸 도움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청주시 복지자원의 총량과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청주시 복지사각지대 지원사업이 성과를 거둔 것은 촘촘한 인적안전망 구축, 효율적인 통합복지포털 시스템 마련, 시민들의

나눔문화 인식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시민 홍보가 밑바탕이 되었다.

청주시는 365! 두드림 통합복지포털을 통해 시민들과 공유하고 민과 관이 소통하여 서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 '찾고 나누는 소중한 이웃', '시민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복지청주'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주시는 앞으로도 1년 365일 청주시민 모두의 꿈과 희망을 두드릴 수 있도록 365! 두드림 통합복지포털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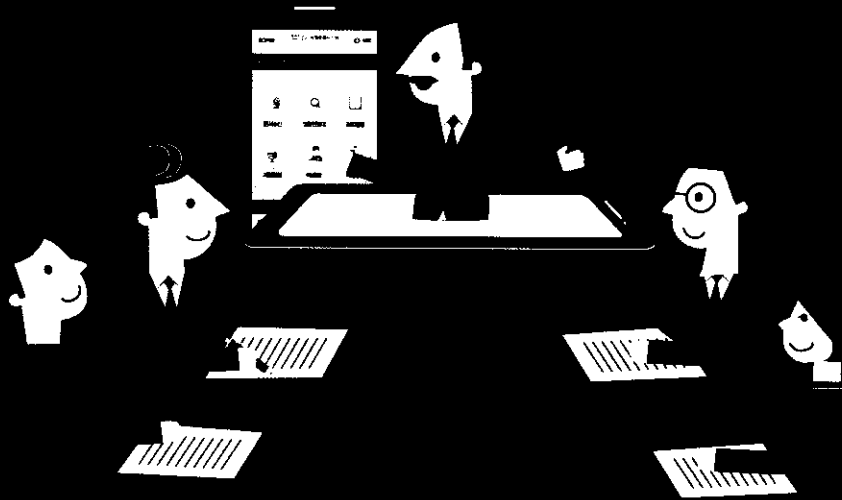


3051
LITTLE
LITTLE
LITTLE

일년 동안 면에서 받은 공문

A4용지로 3박스!

이장 일 하기 너무 힘들어유~



‘종이문서’ 이젠 필요없어요 ‘모바일 시정공유 시스템’으로 고민 끝!

청주시

늘 허겁지겁 바쁜 이장 김씨

가덕면에서 이장을 맡고 있는 김씨는 늘 바쁘다. 부인까지 새마을
부녀회장직을 6년째 맡고 있는 탓에 이들 부부는 가정사 챙기기가 늘
버겁다.

농촌의 고령화로 부쩍 많아진 어르신들, 마을 일을 맡고, 어르신들을
돌보고, 생업인 딸기농사까지... 김씨는 ‘삼중고’의 삶이 늘속치 않다.

늘 시간에 쫓기는 생활을 하다 보니 마을 주민들이 받을 혜택을 놓치지
일췌였고, 수시로 면사무소로 가 담당 주무관과 회의하고 수북한
종이분서에 매달리다 보면 농사일에 소홀해지곤 했다.

종이문서가 1년에 3박스!

2014년 7월 청원군과 통합으로 청주시의 이동장 인원수가 1630명이
되었다. 이렇게 많은 이동장들은 한결같이 종이분서 업무에 대한
고충을 토로한다.

이동장과 읍면동의 공문서 유통과정을 보자.

문서를 작성하여 공분함에 비치하면 길게는 5일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며, 급한 공문은 직원이 직접 배달하거나 전화로 분서수령을
독려하게 된다.

연간 종이로 전달되는 문서의 양은 A4 용지 3박스 정도. 문서 수령을
위해 읍면사무소를 왕래하는 교통비 등을 고려할 때 이동장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2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모바일 시정공유 시스템 시행

청주시는 이동장 업무간소화 및 시정공유, 불편사항 해소 등 일하는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여 정부3.0의 가치 실현을 시도했다. 그 결과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것이 바로 모바일 시정공유 시스템이다.

모바일 시정공유 시스템은 모바일앱을 통하여 공문서 수신, 시정알림, 회의일정, 생활전망대, 이동장 정보, 청주시 직원안내 등 6가지 메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문서 전달과 행정 신뢰도 제고가 가능해졌다.

이제 이동장은 온나라시스템 웹서비스와 대국민공통기반을 거친 시정공유앱으로 어디서든 문서를 확인할 수 있다. '생활전망대' 메뉴는 마을 공동민원과 시정건의 사항을 이동장이 앱으로 신청하면 내부포탈로 연계, 처리부서로부터 배부 및 답변까지 받게 되는 원스톱 피드백 서비스이다. 이처럼 쉽고 빠른 업무처리 환경 제공은 이동장 업무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켰다.

지속적인 교육으로 앱 설치비율 74%로 증가해

하지만 준비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통장의 평균연령이 65세로, 모바일기기 활용이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도 읍면동 직원들의 호응도는 좋았지만 이통장들이 이용방법을 잘 알지 못하여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에 이통장에 대한 사전 사업설명회, 설문조사, 시정공유 방법 개선을 위한 질의·답변 실시 등으로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꾀하였다.

앱 개발시에는 노령 이통장의 사용편의를 위하여 자동로그인, 서비스탭 간소화, 읍면동 직원과 이통장 간 1:1 사용법 반복교육 실시, 생활전방대 내부포탈 자동연계처리(피드백) 등으로 이통장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앱 설치율이 서비스 개시 3개월만에 74%까지 올랐으며 모바일 문서발송이 증가되어 종이 사용량 감소라는 환경개선 효과도 나타나게 되었다.

분야별 맞춤형 어플 제작을 향하여

청주시는 향후 모바일 시정공유를 더욱 발전시켜 대분류를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중소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각 분야의 성격에 맞는 앱을 제공할 계획이다.

860명의 주민자치위원들에게는 회의자료의 사진 공유, 모바일 정보교환 공간을 제공하여 앱을 통한 주민자치위원 활동을 지원할 것이다. 관내 2100여개의 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청 분서 및 경제관련 이슈 등을 즉시 전파하여 중소기업과 공공기관 간 정보 전달의 말초 신경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한지붕 두가족' 혁신도시
같은 지역인데 요금이 달라요



충청북도 혁신도시로 향당해 불편 해당해 해소

진천군

.....

충북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안씨는 생각지도 못한 불편함을 겪었다.

“혁신도시로 이사와 보니 진천군과 음성군의 공공요금에 서로 달랐습니다. 특히 쓰레기 봉투를 살 때는 같은 지역인데도 요금이 서로 달라 불편함이 너무 많았습니다.”

입주 기관에서도 불만이 많기는 마찬가지였다.

“같은 생활권인데 군 경계가 달라서 거리 차이가 거의 없음에도 택시 할증요금이 붙었습니다. 진천군과 음성군이 서로 경쟁적으로 시설물을 짓다 보니 중복투자도 우려됩니다.”

『최초의 마을』 송파별관동지

충북혁신도시는 2005년 12월 진천군과 음성군의 공동신청으로 2006년 2월 선정되었으며, 산학연 정착단계-혁신확산단계로 기본구상을 마치고 건설되었다.

충북혁신도시는 약 2백만평 부지에 1조원을 투자하여 4만 2000명의 계획인구를 구상하고 있으며, 2011년 가스안전공사 이전을 시작으로 11개 국책기관이 이전된 상태다.

충북혁신도시는 생활인프라가 전혀 구축되지 않은 허허벌판이었으며, 양군의 중복부자와 공공요금 편차 등으로 이신기관 및 입주민의 생활 불편과 민원인들의 불만이 상당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진천군과 음성군은 서로 버러를 맞대고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군민들의 생활밀착형 불편부터 해결해야 했고, 이에 공공요금 단일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되었다.

충청북도 공공서비스 혁신 사례

충북혁신도시에서는 제일 먼저 교통 요금제를 통합했다.
진천·음성의 모든 노선에 대한 기본요금을 통합하고 택시요금의 지역 간 차이를 폐지하였다. 그리고 양 군은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예산 지원에 합의하여 입주민과 버스회사의 불편 및 피해를 최소화 하였다.
두 번째로는 쓰레기봉투 요금을 통일하였다.
입주민들이 이용하는 쓰레기봉투 요금의 양군 격차는 70원, 편차가 워낙 커 조정하는데 가장 어려움이 컸던 부분이다.
협상이 결렬될 뻔한 위기도 겪었다.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려야 했던 진천군의회는 아직 몇 명 안 되는 입주민들 때문에 나머지 진천군민이 피해를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적극적인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결국 쓰레기 봉투요금 단일화를 실시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양군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중간 가격으로 단일화하게 되었다. 진천군은 27.6% 올리고, 음성군은 17.1% 내려 양 군간 쓰레기봉투 가격의 단일화를 이뤄낸 것이다.
세 번째로 상하수도 요금 단일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입주민들의 정주여건에 가장 중요한 것이 상하수도 문제였다. 양군은

이원화된 요금체계를 단일화하여 지역 간등을 해소하고 동일 생활권을 조성하겠다는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보였다. 그 결과 내년 상반기에는 상하수도 요금이 통일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주민세를 단일화하였다.

주민세는 행정자치부 권고사항 및 혁신도시 요금단일화에 맞추어 진천군에서 2천원을 인상, 음성군에서는 동결하여 통일시켰다.

혁신도시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군민 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공공요금. 진천군과 음성군은 공공요금으로부터 비롯되는 갈등원인을 분석하여 지속적인 협의와 의원간담회를 통해 단일화를 추진할 수 있었다. 현재는 이에 대한 입주민들의 모니터링을 상시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진천군과 음성군은 기관장을 중심으로 수요자 중심의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가장 현실적인 공공요금 단일화를 추진하였으며, 양 군은 상호 신뢰와 이해를 통하여 갈등을 최소화하고 입주민들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공공요급의 단일화는 지자체간 경계를 넘어 진정한 도시발전과
주민행복에 기여하는 협업행정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늘에 별따기' 취업에
구인난도 갈수록 심화되는데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늘에 별따기
취업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지역맞춤형 교육지원사업으로 구직 구인난 한 번에 ‘짜~악’

보은군

고만에 빠진 A기업 관리부장

기업 확장과 새도약을 위해 보은군으로 이전을 결정한 A기업의 관리부장은 큰 고만에 빠졌다. 생산규모를 대대적으로 확장하여 이전할 계획인데, 이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전문 기술인력 수급이 여의치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마침 보은군에서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열어 인력수급에 대한 고민을 털어 놓았다.

“기존 기술자를 뒷받침할 신규 기술인력이 부족한데, 모은군내에서 우리 기업에 맞는 구직 기술인력이 있을 지 걱정입니다.”

구직하기 힘든 청년실업자 B씨

모은군에 거주하는 B씨는 구직활동 중이다. 하지만 여의치 않다. 취업포털과 직업소개소에 문의하여도 구직은 하늘에 별따기이고, 그나마 모집 중인 채용공고는 단순 생산직과 계약직이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해당 분야에 몇 년 이상 경력이 있는 지를 묻는 곳이 많았다. 이젠 나이도 30대 초반이고 장래를 생각하면 전문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하는 직업을 평생직장으로 삼아 인생을 설계해 나가고 싶었지만 현실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최근에는 인근 대도시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맞는 조건이라면 자라온 고향을 떠나야 할 준비를 하여야 할 것 같다.

보은 산단 채용 인력 대부분 생산직 한계

보은군은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성장거점으로 동부일반산업단지외 보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계획하였다.

동부일반산업단지는 단일 기업에게 전체 산업용지를 일괄 분양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중견기업의 입주로 지역 내 고용유발과 인구유입이 기대되었고, 실제 입주기업의 외연확대와 생산체제 확장개편으로 보은군을 연고로 한 청년 구직자 약 200여명이 채용되었다.

그러나 채용인력 대다수는 전문기술분야가 아닌 단순 생산직에 한하여 이루어졌고, 국내외 산업경기에 따라 제한적으로 채용이 이루어져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찾아가는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

이러한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민-관-산-학 네트워크를 통하여 기존 단순 구인구직 위주의 채용구조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직업 영위가 가능하도록 지역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을 계획하게 되었다.

먼저 보은군으로 입주하는 기업 중에서 동일 업종에 있으면서 채용이

필요한 기업과 조율하여, 사업의 필요성이 우선 시급한 3개의 기업과 근로자가 갖추어야 할 교육과정을 협의하였다.

그러나 보은군에는 전문기술 양성기관이 단 한 군데도 없었다. 기업과 협의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외부 지자체에 소재한 교육기관을 알아본 결과,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에서 관련 기술 교육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보은군은 남인천캠퍼스와 교육지원사업에 관한 이해를 함께 하기로 하고 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교육생의 의무채용과 성실한 전문기술교육 수행을 골자로 한 지역맞춤형 교육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A기업의 관리부장은 교육을 수료한 기술인력을 근로자로 제공받을 수 있었고, 청년실업자인 B씨는 군에서 지원하는 전문 기술교육 과정을 성실히 수료함과 동시에 지원기업의 근로자로 채용되어 직장을 얻게 되었다.

모두가 윈-윈하는 채용전략 마련

보은군은 지역을 연고로 한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모두가 윈-윈하는 채용전략을 적극 홍보하였다. 이와 함께 지원서 접수와 기업면접을 앞선하였으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교육생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입주기업은 의무채용을 전제로 하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지원자를 선발하도록 했으며, 교육훈련 종료 후에는 현장실습을 통해 교육생이 기업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최적화된 직원이 되도록 지도하였다. 이러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교육기관인 한국폴리텍대학 난인천 캠퍼스를 통해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과정을 교육하고 기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전문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보은군은 청년들의 새로운 구직 장구를 마련하고 일을 찾아 대도시로 떠나는 지역 경제인구의 유출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보은으로 이전한 기업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기업 유치 후에도 적극 지원함으로써 상생 동반자로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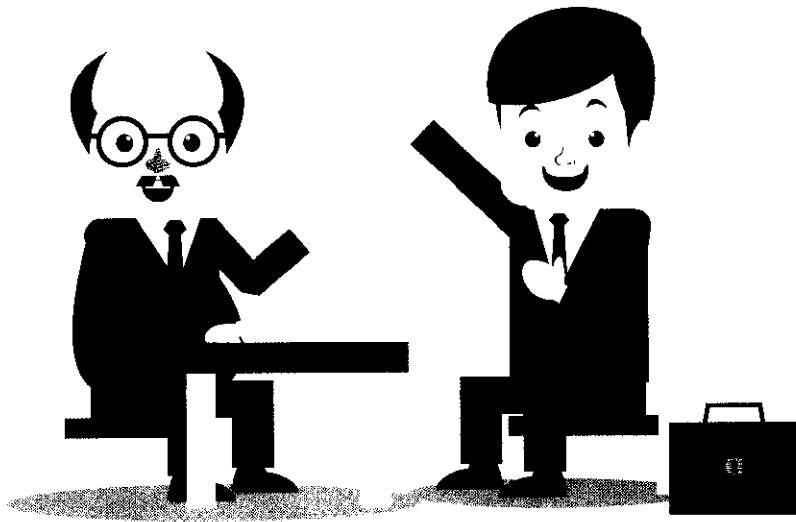
해당 기업은 본사 이전으로 인해 소요되는 총원 인력을 기술인력으로 제공받음으로서 효율적인 기업운영이 가능하게 되었고, 지역인력 고용으로 기업이미지 제고와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교육을 통해 채용된 지역의 청년 취업자들은 전문분야 지식을 습득한 기술인력으로 근무하게 되어 기술자로서의 동기부여를 얻고 직업적 성취감이 고취되었다. 향후에는 전문기술인력으로서 재취업과 창업의 기회에도 자유로워 관련 업계에서 경험한 숙련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인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창조시책 발굴

전국 최초로 실시한 지역인력채용사업은 순수 군비로 맞춤형 교육 지원을 실행하는 것으로 이제 막 걸음마 단계이다.

그러나 보은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보은군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경제 인구가 증가되면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제도의 활용방안은 다양하게 그 외연을 확장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한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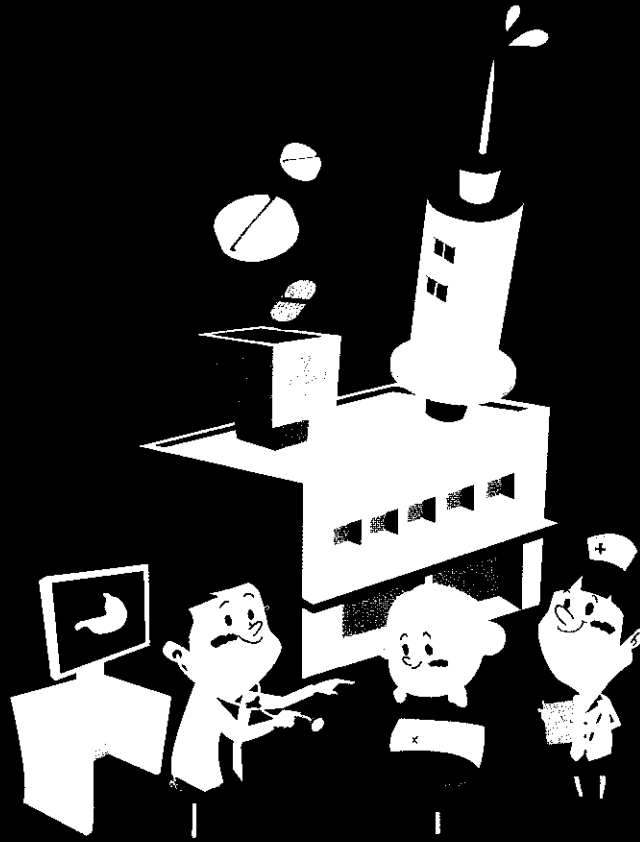
구직 구인만
한번에 OK!



매월 의사가 찾아와

건강상담에 진료...

말벗까지 해주니 너무 고마워요



‘경로당 전담주치의 서비스’로 읍내 병의원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줄었어요

영동군

영동군이 충청북도 내 지자체로는 처음 시행하는 ‘경로당 전담 주치의 서비스’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높기만 한 병원의 문턱, 두렵고 어렵기만 했던 의사 선생님, 그런 생각들이 경로당 전담주치의제로 말끔히 바뀌었다.

경로당까지 직접 찾아와 몸 상태를 체크하고 건강 상담을 해주며 진료까지 해주는 친절한 의사 선생님들을 보면서 영동군 어르신들은 “세상 참 많이 좋아졌다.”는 말을 자주 하신다.

경로당 전담주치의제에 대한 높은 '호응'

용화면에 사는 김씨는 "경로당 전담주치의 서비스가 좋은 가장 큰 이유는 병원에 가지 않고서도 경로당에서 편안하게 평소 궁금했던 부분들을 의사에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늘 그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한다.

학산면 압치리에 사는 정씨는 "경로당 전담주치의제가 없었다면 큰일 날 뻔 했다"고 말한다. 자신도 전혀 알지 못했던 질병을 이 제도를 통해 발견했기 때문이다.

정씨는 경로당을 찾아온 전담주치의와 상담을 하던 중 종합병원검진을 권유받았고, 이를 통해 뇌혈관 질환 보유 사실을 알게 되었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자칫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아직까지 그 때 일반 생각하면 등골에 식은 땀이 흐른다는 정씨는 사전검진과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위 사람들에게 늘 이야기한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에게는 전담 주치의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일깨워주는 '홍보대사'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이웃 주민들과 소통하는 진정한 의사

양산면 경로당 전담주치의인 한의사 신 씨(38)는 한 달에 두 차례 경로당을 방문한다. 그녀는 그 때마다 반갑게 맞아주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공중보건의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

여기에 특별히 개인적인 취미를 살려 어르신들의 사진을 일일이 찍어드리기도 한다. 그렇게 찍은 사진은 예쁜 액자에 넣어 다음 방문 때 선물로 드리고 있다.

어르신들은 자신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번 길 마다않고 달려오는 의사 선생님이 고맙기 그지없는데, 예쁜 영정사진 선물까지 챙겨온다며 입이 마르도록 고마워하신다.

주민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해지면서 마을 어르신들과의 사이도 더욱 가까워졌다. 어르신들께서 순수 농사지은 포도, 고구마 등 농작물을 선물하고 따뜻한 밥을 지어 집으로 초대하는 일이 잦아졌다. 이런 '행복한 교환'이 신 씨에게는 진정한 의사로서의 길을 계속해서 걸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준다. 공중보건의를 마치고 개업을 하게 되면 영동군에서의 '따뜻한 기억'을 살려 성심성의껏 환자를 돌보고 최선을 다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볼 생각이다.

노인성 질환 예방으로 삶의 질 향상

영동읍 산익리 장 씨는 만성적인 허리와 무릎 통증으로 병원 가는 게 늘 버거웠다.

게다가 고령인 탓에 투약 중인 약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약물을 오남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던 중에 배달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질환별 약품을 가지고 오셔서 자세한 설명과 투약 방법을 알려주니 건강에 많은 도움을 된다는 반응이다. 또 중복 처방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설명까지 해주니 이 또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고 칭찬이 자자하다.

문제점 보완하고 대상 경로당 확대 검토

‘경로당 전담주치의 서비스’는 영동 지역 어르신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영동군에서는 교통이 불편하거나 만성질환자가 많은 마을 경로당 44곳을 시범 선정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 23명을 주치의로 지정하여 둘째·넷째 주 수요일 오후 경로당에 출장해 기초 건강검진과

내과·한방진료 등 주민 건강을 돌보고 있다. 아울러 마을 방송 및 주민홍보도 부지런히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미흡한 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농번기에 참여도가 떨어지는 것,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병원 의뢰를 하더라도 당장 나타나는 질환이 아니어서 내원 요청이 환자의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 등이 그것이다.

영동군은 이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에도 대상 경로당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이디어는 있지만
실행이 가능할까요?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부서간 칸막이를 없애고 지역간 경계도 허무는 협업행정의 활성화

증평군

증평군에서 근무하는 이 주무관(40)은 요즘 고민이 많다.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은 많은데, 공모사업으로 추진해 보려고 계획서를 만들어 가면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추진이 어렵다는 답변만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김 주무관(38)은 이와 반대되는 고민에 빠졌다.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원을 조성해야 하는데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공모사업을 신청해 국·도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계획서 만들기가 매우 어려운데다 정작 김 주무관은 당면한 민원 처리만으로도 밤잠을 못 이룰 때가 많다.

부서 이기주의 벗어난 협업 실천

충북 증평군의 면적은 81.84km²로 군 단위에서는 울릉군 다음으로 작은 면적이다. 행정체제는 1읍·1면이고 공무원 수는 371명으로 전국 최소의 자치단체다.

군의 단위가 작다보니 군청 내 협력도 쉽지 않을까 싶지만 어느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남의 부서 일에 관심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내 일 추진하기도 쉽지 않는데 다른 부서 일까지 도와줄 여력이 없다는 생각이 팽배해있기 때문이다.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하다

행정업무는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몇몇 공무원들이 이런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무엇보다 소통을 위한 부서 간 칸막이 없애기가 절실했고, 사전 준비단계로 부서가 함께 토론하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러한 고민 끝에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다. 현장 분위기가 활성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할 공식적인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고 실행단계에는 '중평3.0 부서 간 협업행정 협약제'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부서 간 협업 분위기가 인근 지역까지 확산되어 지역 간 연계협력 사업도 추진되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3-STEP'형 협업행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우문현답 포럼의 활성화

우문현답 포럼은 군정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1개 부서에서 주제를 정하여 발제하면 다른 부서 직원 5명 내외가 패널로, 기타 부서 직원 60명 내외가 방청객으로 참여하여 토론한 후 필요시에는 현장을 방문하는 시책이다.

중평3.0 부서 간 협업행정 협약제는 기획(행정) vs. 실행(기술)이라는

이원화 구조의 약점을 보완하고 역할분담을 통한 업무 효율화를 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안해결, 복합정책이거나 동일 공간 내 다수부서가 연관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서 간 협력 부족이 우려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기관장 인회하에 역할분담 협약은체결하고 있다.

부서간 협력이 지역간 협력으로

증평군 내부 협업의 노력은 지역 간 연계 협력으로까지 확산되었다.

2014년 4월 1일 개관한 증평군립도서관을 인근 청주시(북이면), 음성군(월남면), 괴산군(청안면, 사리면), 진천군(조평면) 등 타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고 공동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상생발전을 도모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는 생활권은 동일하지만 행정구역상 편제가 다르다는 이유로 시설의 공동 활용이 배제됨에 따라 발생하던 주민불편과 예산 낭비를 해소한 사례다.

그밖에도 세종대왕 힐링로드 100리길 조성 등 6개 연계협력 사업 추진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연계협력사업 추진지역이라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성공요인은 협업과 소통

첫 번째 성공요인은 협업행정 추진의 컨트롤 타워를 만든 것이다.

증평군은 2013년 7월 1일 미래전략과를 협업행정 전담부서로 신설, 시설직(디자인 직렬)을 배치함으로써 최근 증가하고 있는 PPT 발표 평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켰다. 그리고 협업행정 추진시 기관장(군수)이 참여 및 입회하도록 한 것은 협력의 실효성을 담보하였다.

두 번째 성공 요인은 정부 3.0에 지역 주민의 동참을 이끌어낸 것이다. 2015년 4월 충청북도가 공모한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에서는 공모사업 및 군립도서관을 총괄하는 미래전략과와 여성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주민복지실이 부서 간 협업행정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증평군여성단체협의회가 함께 참여하여 '커피3.0-여성3.0-증평3.0

커피 바리스타 과정'을 응모하였다. 2015년 3월에는 증평군청 소회의실에서 창조지역사업 및 균형발전 공모사업 응모를 위한 미래전략과·문화체육과·산림공원사업소의 협업행정협약에 대하여 증평분화원·증평공·율리마을 주민 대표 간 협약이 체결되기도 하였다.

그 결과 증평군은 균형발전공모사업 선정은 물론 창조지역사업에 대하여 대통령직속지역발전위원회가 선정하는 2015년 지역발전 우수사업에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알면 유용한 생활속의 정부3.0



내가 먹는 약에 대한 금기 사항, 효능 중복 등 알아보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 약제정보 · 의약품 안심서비스



상품비교, 리콜, 비교공감, 안전·위해, 가격정보 등 통합 제공
스마트컨슈머 누리집 www.smartconsumer.go.kr



등록된 번호로 119에 신고하면 출동하는 구급대원이 환자맞춤형
응급처치 등 신속한 서비스 제공
u-119 안심콜 <http://u119.nema.go.kr>



손쉬운 병원 찾기, 실시간 문 연 약국, 요양병원 상세정보,
내가 먹는 약 등 국민이 자주 찾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제공
스마트폰 '건강정보' 앱



여러 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본인의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일괄
조회하고 등 정보를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 www.payinfo.or.kr



전국아파트 관리비 뿐 만아니라 아파트 유지관리 및 하자단보기간,
아파트 가격정보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많은 정보 제공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www.k-apt.go.kr

도민 행복을 위한
작지만
커다란 변화

인쇄일 2015년 12월

발행일 2015년 12월

발행처 충청북도

기획편집 충청북도 창조전략담당관실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충북도청

전화 043-220-2251

디자인·기획 열린기획

